

電力界의 小史 (二)

會長

○ 遞信의 始初

電力界의 小史라하고 遞信의 始初云々は 쓸데없는
덧부치기라 하겠지만 遞信은 外戚집되니 電力과는
廣義의 同一系統이요 公報히 내메모에 記錄되어
있기에 여러분의 參考나 될까하여 添記하나다.

遞信의 始初는 續紀2820年 某月某日 (日未詳)
이나 距今 1471年前이라 아마 新羅炤智王時代
일것이며 駁傳式 遞送方法이 었다고 推想합니다

○ 電車의 始初

電車는 續紀4232年 (西紀1899年) 光武三
年 五月十七日 (陰4月8日)에 開通되었습니다 始
運轉은 그前에 되었지만 特히 陰4月8日이라는
名節을 授하야 公式開通式을 하고 三日間 無料乘車
시킨後 營業을 開始하였는데 當時 長安의 豪傑들
이 電車타기에 맞쳐서 大流行이 되었다 합니다

距今五十九年前인데 이에 대하여 多少異常感과 興
味が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大抵 電氣라하면
누구나 電燈을 먼저 聯想할것이며 事實 그地域에
電氣가 生起면 먼저 電燈을 켜고 動力을 供給하
고 其後에 電車라든가 他電氣工業이 發展되는것이
順序처럼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電燈
보다도 먼저 電氣가 뛰어나왔으니 甚異常도 하고
必其曲辨인데 其理由의 一畵도 알피는 있으나 此
項이 大分 長篇하여지고 比較비비 따질必要도 없
기때문에 後日로 마루겠습니다

○ 電燈의 始初

電燈은 續紀四二三四年 (西紀一九〇一年) 光武五年

大月一日에 莫火되었습니다 全市에 需用家가 五
〇〇戶요 燈數大〇〇餘燈이 었다고하니 平均每戶一
燈余라고 볼수있겠지요

當時 電氣專業體인 漢城電氣會社가 右記한 商業用
電燈에 莫火하기前에 美國人 케헤일라 이라는 분
이 當時宮中(德壽宮)에 電燈을 켜었다고 하나
아무런 記錄이 없이 遺憾千萬이나 하는수없이 右
記四二三四年 大月一日을 電燈의 始初라구 定할수
밖에 없읍니다

○ 電話의 始初

電話는 所謂弱電이라고 하여 電力과는 다르나
前記한 遞信 電信과 같이 電力과는 堂內至親格인
으로 여기에 또 쓰게 되었습니다

電話는 續紀四二三五(西紀一九〇二年) 光武六年
大月十九日에 公式開通이 되었습니다 場所 方式
等은 未詳이오나 年月日만은 틀림없읍니다

以上과 如히 二十世紀 初葉에 이르러 電燈이 켜
지고 電車가 運行되고 電話가 開通되었으니 이것
을 諸外國과 比較하여 었던 關係에 있는지 滋
味있는 問題이나 여러분께서도 余暇있는대로 査
査하여 보시고 參考될 事項이 있거든 좀 가르켜
주십시오

建設業法에依한電氣技術者資格에關한件

今般 實施되는 建設業法에 隨伴되는 電氣技術者 資格에 關하여는 會員諸位의 假如之事實인듯 似고 且 暇時之數인 有하오나 簡單히 說明하의 諸位의 參考가되던 幸甚일가 합니다

建設業法에依한 電氣工事는 土木、建築工事に 隨伴 되는 屋內配線工事に 局限되는것이 且 附隨發變電所又는 送配電線路建設工事等은 除外되는것이올시다 建設의 責任技術者는 土木、建築은 甲類、乙類 及 丙類의 三階級으로 定할 予定으로 法改正을 進行 中이며 電氣는 過去 電氣專業會에依한 一種 二種 及 三種의 主任技術者資格을 既得者는 申請인하 면 無試驗免許하게 되었으며 此一類 二、三種을 前記 甲乙丙三類에 對比하면 一類 二種은 甲類 에 該當되며 三種은 乙類에 該當됩니다

內務部에서는 法이 改正되리라는 前提下에 土木、 建築技術者에 對하여는 甲、乙、丙、三類의 資格試 驗을 實施하게 되었으며 電氣에 對하여는 商工部 所管인 電氣專業會에 依한 主任技術者 一、二、三 種에 限되지 아니하며 且實際土木建築工事に 附 隨되는 屋內配線工事に 責任질 資格者가 所要됨으 로 丙類만의 資格試驗을 實施하게 되었습니다 印 의 公符와 如히 七月二十一日까지 申請者數하여 八月八、九、十日、三日間 筆記及 口述試驗等이 實 施됩니다

此試驗은 年一回式 施行되나 電氣의 主任技術者資 格 既得者는 暇時 申請하여 免許를 受得하게 됩 니다

以上과 如히 電氣의 丙類技術者資格 附與를 內務 部에서 取扱하게 되었으나 此는 臨時措置이며 商 工部에서 進行中인 電氣專業會이 國會에 通過되

且 電氣主任技術者資格이 規定되且 且 一步前進하 여 工事人免許制度도 規定되어 電氣技術者資格을 商工部에서 取扱하여 未久에 一元化될을 懸料되며 또 此를 希望하는 바이올시다

다음 電氣技術者의 免許申請의 簡次를 略記하면

一、 電氣主任技術者資格 既得者는 申請書를 具備하 여 電氣學會에 提出하면 學會에서 一括 內務部 에 申請하기로 되었음(但 免許申請用 印紙代는 免除됨)

一、 丙類申請者는 七月二十一日까지 申請書를 內務 部에 直接 提出하것

一、 免許申請은 每年 一次式이나 主任技術者資格을 既得者는 暇時 申請할수있음

一、 申請書에는 此히 電氣學會長이 査明한 卒業(證書不所持者)及 經歷證明書를 添附할것

且 甲乙丙 三類의 試驗基準의 出題程度를 參考 로 如左添記한

甲 類

教育法에依한 大學卒業程度의 學力을 가지고 技 術部門을 總轄하며 建設工事に 關한 企劃과 施工 을 指揮監督할수있는 技術責任者의 能力이 있는가 를 考査한다

乙 類

教育法에依한 高等學校卒業程度의 學歷을 가지고 建設工事に 關한 企劃과 施工을 行수있는 中堅 技術者의 能力이 있는가를 考査한다

丙 類

學術에關한 基礎的인 概念을 把握하고 現場實務 者의 能力이 있는가를 考査한다

以上 建設業法 全體에對하여 詳記하여서 會員諸位의 參

考에 供함도 可하였으나 紙面의 制限이 有함으로
 以上과如히 電氣技術者에 限한件만 略記하였읍니다
 今般建設業法은 技術者를 重要視하며 또 優待하
 는意味가 包含되어 있으나 其反面 技術者의 資格
 免許制가 施行됨으로 免許를 受得하기 爲하여 實
 力을 養成하라는 警鐘도 되는것이 을시다 就職
 難云々하지마는 참다운 實力技術者를 求하기 困難
 하다는것이 世評이 을시다 技術者는 모름지기
 技術實力이 唯一의 武器임은 贅言할 必要가 無하
 겠읍니다

七月十八日

副會長 金 鐘 秀

學 會 記 事

任 員 會

日 時 禮紀四二九一年六月二五日
 場 所 學 會 事 務 室

會 議 事 項

1. 電氣工學誌編輯刊行의件
2. 電氣技術者與 業本功者者 表彰推薦의 件
3. 免許申請技術者 經歷證明願認定에 關한件
4. 其他事項

任 員 會

日 時 禮紀四二九一年七月七日
 場 所 京 城 電 氣 株 式 會 社 (金 額 會 室)

會 議 事 項

1. 建設業法의 電氣技術者에 關한 討議의 件
2. 其他事項

新 規 入 會 員

其 他
 張 相 斗 沈 熙 養 金 英 男
 全 榮 郁 李 潤 煥 姜 考 根

祥浩烈奉守錄熙鈞寬錫謙鐵乙寬鶴根仁英觀九常熙固燦麟
 錫相狂龜辰洛錫奭泰匡冠東松永壽永壽海熙林伍錫永東成
 金金高十權全金安金許成尹金十義金吳黃金金權尹金成金
 殷植虎榆翼永業孫麟淳輝勉根結植遇元均英壽煥澤山在泳
 炳長鐵 光恭富范亨榮熙國明鳳英光世世春光圭吳潤德基
 朴金石韓金毅尹金禹李金宋石金未季金申李趙鄭沈盧張崔
 兩九吳浩顯謀廷承植洙憲鶴麟寬浩敏巖石等德國洪植植達麟
 政炳吉炳鍾尙南東仁定泰昌昌昇明尙坤元鑽相明熙根雲添奉
 李采吳趙石具李安趙韓斯安李李逸金金泰都李李權朴洪金金

急 告

(一) 머리의 말씀

黃한 紙面을 通하여 閑話 客談, 이라는것을 쓰고있는데 그야말로 客談이라 되지못한 話音뿐이지 만 率直히 말하면 平素에 여러분에게 하소연 하고싶은것을 橫說 豎說 되는대로 고쳐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고해서 會報가 配布되면 보잘것 없다고 그저 그냥 부비여 휴지통속에 버리게 된다면 殊々 치못한 學會의 努力이지만 學會는 너무나 慚愧합니다

아무리 精勞한 文章이지만 한번씩 읽어주시면 榮光이요 또 여러분에게도 多少나마 參考가 될까합니다

이번에는 閑話도 아니고 小說도 아니고 精히 여러분에게 솔히 告할 말씀이 있어 急告라는 題目으로 몇호 쓰는것이오니 제발 한번만 꼭 읽어주시어주소서 懇切히 바읍니다

(二) 學會誌에 대하여

學會로서는 機關誌로 『電氣工學』이라는 雜誌를 始作하여 第六号까지 發刊하였습니다 學會가 創立된後 事及 避難 收復 等 不安定所致와 經濟의 不自由로 定期的으로 繼續發刊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學會編輯幹事도 아무리 努力하나 잘되지않고 會長自身이 一々히 찾아다니면서 原稿한번 써달라고 百拜 哀願하여도 來々 한장도 얻지못하였습니다 勿論 原稿料 한푼 내지 아니하고 茶憵잔 사지 아니하고 그냥 써달라고 졸라대니 原稿가 모일일이 없고 社員들도 鐵面皮요 廉恥없어 弁明할餘地도 없습니다

수후 萬苦하야 半年이나 一年동안에 原稿 몇줄 얻어서 金야 도야 위하고 모시었다 하여도 이것을 發刊할 財源이 없어 또 歲月을 보내게 됩니다 겨우 無理 強行하여 發刊하면 그 余毒이 또 半年이나 一年間 가지지 아니하고 필자매게 됩니다 그래서 創設時때에는 죽어도 三個月에 一回式 年 四回程度는 發刊하자고 計劃한것이 一年에 三回도 못되고 二回도 어렵고 及其世 年一回나 될까 말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못한 사람들의 窮說이나 原稿料나 좀 두々기 드리고 執筆者도 가끔 招待하면 原稿는 얼마든지 드러낼것이오 돈々하지만 三환에 付託하야 二, 三十萬환式 내달나고 하고 業界에서도 좀 받아들면 되지 않느냐 會長以下 社員들의 活動이 不足하고 各分担委員들의 努力이 없는 까닭이라고 꾸스람과 큰걱정을 뜻고 있습니다 實도 有口無言이 올시다

그러나 저의 社員들도 오래前부터 이程度의 計劃과 努力은 하여보았으나 亦是 手暇이 없는 달인지 잘되지않고 甚至於는 學會가 장사나 하여볼까 出版業이나 하여볼까 뿌룩키나 하여볼까 融資나 얻어서 高利貸金業이나 해볼까 別々 生業과 窮理를 다- 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萬事가 다- 容易치 아니하고 또 근하면 근했지 學會로서는 到底히 이러한 것을 할수없나 하는 自負心도 있고 또 多少 總會가 있어도 선뜻 決行할 自信과 膽力이 없어 늘 躊躇하고 있기때문에 氣盡神盡 狀態이오나 決코 自暴 自棄한 것은 아니오며 무슨 力途를 取하지 吾基礎를 세워 보라고 七轉八回하고 갔어오니 여러분께서도 構입없이 支後 繼續하여 주십시오.

(三) 會報에 대하여

前項에 말씀한바와 같이 『電氣工學』誌는 잘 發刊되지 못하고 회원 여러분과 會見할 機會도 드무려 學會와 會員間은 一年 열두달 아무런 關係이 없게되니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여 社員들이 構想한것이 이 會報을이다 會에 簡報가 있고 社에 簡報가 있듯이 우리 學會에서도 會報를 내어 學會의消息 會員의 動態 社員들의 報告 學界의 동향 業界의 概況 등을 簡單히 收錄하여 四,五 頁程度로 每朔發刊하기로 되어 去三月부터 發行하고 있습니다

勿論 体裁 內容等 極히 貧弱하지만 其趣旨과 目的은 學會가 할수있는 限으로 學會의 消息을 會員 여러분께 傳하러하는 것이요 决코 이것으로서 『電氣工學』을 代身하여 本學會 機關誌로 하자는 打算은 欲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貧弱한 學會요 無能한 社員들 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簡單한 會報를 가지고 機關誌라 讚稱하거나 或은 『電氣工學』誌가 發刊되지 못하니 이 會報를 가지고 適當히 稱讚하거나 乃至 塗稱하려는 非常敍의 庸劣 淺薄한 意圖는 조금도 없습니다

此會報가 發刊된後 어찌-一部會員은 『會報는 참좋은 出發이다 今後도 繼續하여 달나』고 付託이 있었으며 또 어떤-一部會員은 『所謂 學會라하면서 이러한것을 發刊하는것은 可可라 짐어쳐 우고 尊權威있는 雜誌를 發刊하여라』고 忠告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 一理있는 말씀임으로 반전고 感謝히 뜻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學會를 사랑하시는 恩惠로서 時々로 만한 叱責과 勸勵와 稱讚을 하여 주십시오 淸待하고 있겠습니다

(四) 여러분의 玉稿를 淸待합니다

以上 말씀한바와같이 會報는 每朔 必히 繼續하겠읍니다 또 『電氣工學』誌도 發刊하고 온갖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財政도 財政이거니와 原稿가없어 아주困難합니다 빈손들고 原稿만 請하기는 참으로 無色하고 廉恥 없읍니다

會員各位는 本學會를 사랑하시와 다만 두서너줄이라도 좋읍니다 좀 써 보며주십시오

編修幹事가 適當히 編輯하여 會報에든지 工學誌에든지 掲載하겠읍니다 技術的 學理的長編은 勿論 이고 二,三行의 短編이라도 좋으니 제발 비나이 다 한 문 써 보며주세요

여러분의 淸즈럼도 甘受하겠읍니다 여러분의 稱讚도 感謝히 맞겠습니다 그러나 六百六十餘名이 나되는 會員中 한사람의 原稿도 沒연없다면 社員들의 非難선이가 되질까요 손들고 筆仕코야 겠읍니다

百마의 우마의 實行困難한 空論보다도 한가지 實現性있고 建設的인 勸告를 뜻고심읍니다 學會의 內容과 그周圍의 實情을 아시기爲하여 學會와 淸히 接觸하여 주십시오 學會는 여러분의 學會을시 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原稿한장 써보며주세요 懇曲히 願코나이다

四二九一, 七, 七

會長 尹 日 重